

7년여만에 친환경 처리체계 구축

환경자원순화센터 매립 이어 26일 소각시설도 준공 가연성 폐기물 매립 제로화·100% 소각처리 시스템

‘제주환경자원순화센터(이하 센터)’가 계획된 지 약 7년 3개월 만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특히 환경자원순화센터 준공으로 도내 가연성 폐기물 매립을 제로화하고, 100% 소각하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환경자원순화센터’의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준공식을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입지 선정계획 결정공고일로부터는 약 7년 3개월, 착공일로부터는 약 3년 6개월만이다.

센터 조성에는 약 2058억원이 투입됐으며, 불연성 폐기물 매립시설과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매립시설은 사업비 570억원을 들

여 약 15만㎡의 면적에 242만㎡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으며, 소각시설의 경우 1488억원을 투입해 1일 500t 처리규모로 조성됐다.

매립시설은 이미 지난 3월 30일 준공돼 불연성폐기물이 정상반입·처리(매립)되고 있고, 소각시설은 지난 9월 18일부터 행정수거차량에 의해 수거된 물량에 한해 시운전 중이다. 현재 1일평균 반입량은 불연성 폐기물 120t, 가연성 폐기물 218t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환경자원순화센터의 준공을 통해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100% 소각으로 갈 수 있는 친환경 폐기물처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히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연간 2만5천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 9만㎾를 생산·판매해 연간 106억원의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9만㎾는 제주도내 가정당 연평균 전기사용량을 감안할 때 연간 2만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난 3월 30일 매립시설에 이어 이번 소각시설 준공으로 ‘제주환경자원순화센터’ 조성이 전부 완료되면 향후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모두 정상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소각시설 노후 및 용량초과로 인해 가연성폐기물이 소각되지 못하

고 매립시설로 직매립되는 등 운영상 불가피함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과 기존 소각장의 미처리 물량 반입으로 인한 일시적 과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소각시설이 준공된다라도 기존 소각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가연성 폐기물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반입하고, 홍보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2019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효과



가파도 깨보리 건빵을 개발한 진생영농조합법인.



인하네 농업법인회사가 개발한 '한라봉 hpp 착즙주스'.

지역 농산물 활용 농업-기업 '상생의 길'

진생영농조합법인 가파도 깨보리 건빵 출시 인하네 농업법인회사 한라봉hpp 착즙주스 개발

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은 농민축산식품부가 지역 가공용 농산물의 생산실정에 맞는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농업-식품기업의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제고하고, 농업-식품기업의 연계 촉진에 필요한 항목 및 성과관리 자원을 통해 실질적 성과 제고와 확산 도모를 기본방향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농업-기업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지원 등이다.

우선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은 식품기업과 연계해 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 하는 생산자 단체에 장비시설 임차, 병행종 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사업은 지역 생산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농산물의 운송·저장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다.

농업-기업 연계 촉진 및 성과관리 지원은 사업 설명회를 포함 수요 및 기존 제품 포장지 디자인 변경과 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업관리, 사례발굴, 실적점검 등 연계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사업주체가 돼 이뤄지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올 한해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곳이 있다.

▶진생영농조합법인(대표 이명훈)은 “제주 밭담 사이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맑은 햇살, 깨끗한 물을 머금고 자란 곡식을 제주 농부의 착한 마음과 제주 기업의 정직한 마음으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진생영농조합법인의 회사 소개 글이다. 고품질 곡식을 생산 가능케 하는 최첨단 도정시스템 완비로 청정제주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개발에 힘쓰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2008년 설립된 진생영농조합법인인 그해 11월 곡물도정업 공장을 등록한 뒤 ‘밭담곡식’과 ‘동굴쌀’ 등을 상표등록했으며, 제주산 참기름과 국내산 들기름을 출시했다. 작년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됐으며, 올 들어서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제주플라자’ 쇼핑몰에 입점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조합은 청정 제주에서 재배된 곡식을 최첨단 도정시스템인 정미기와 색채선별기를 이용해 고품질의 곡식을 생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항상 신선하고 맛있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까다로운 제품 생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조합은 올해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 사업을 통해 가파도 깨보리 건빵을 개발 출시했으며, 메밀과 콩, 귀리 건빵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신제품 포장지 디자인 개발 및 기존 제품 포장지 디자인 변경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이명훈 대표는 “항상 신선하고 건강한 제품을 전달하겠다”는 의

지를 피력했다.

▶인하네 농업법인회사(대표 김지혜)는 청정제주에서 기존의 농수산물 기업과는 차별화하기 위해 10년이상 관리 재배한 비옥한 땅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호남에서 직접 감귤을 재배해 품질관리와 수작업의 선별을 통해 고품질의 판매를 시작했다. 이어 건강과 친환경을 생각하는 청정제주에서 재배된 우리 농수산물을 체계적인 자동화 프로그램화 시스템을 도입해 제주 발전노력에 기여하는 농산물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인하네’의 대표 품목인 ‘굴’의 메인 시즌에 자체 제작 박스 및 리플렛,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SNS 중심의 마케팅을 활발히 전개하며 작년 ‘초당옥수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마케팅 및 판매를 진행해 시즌 내내 판매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인하네는 올해 농업간연계강화 사업을 통해 한라봉hpp 착즙주스를 개발했다.

김지혜 대표는 “감귤과 만감류 등 농업은 제주를 이끌어 가는 힘이자 원동력이다. 하지만 농산물의 가격은 외부적인 자연재해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안정적인 가격지지와 극단적인 산지폐기라는 조치를 막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농가에서 기존에 판매중이던 단순한 1차산물인 한라봉의 잉여생산물과 상품성이 낮은 중저급 농산물을 단순히 버려지는 용도가 아닌 상품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도 기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민주주의·다양성·참여 가치 관철된 문화도시 추구해야” 제주시 추진위원회 세미나



지난 21일 제주시 중앙로 하나은행 VIP라운지에서 열린 '삶의 공동성 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삶의 공동성 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세미나’가 지난 21일 제주시 중앙로 하나은행 VIP라운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전환을 위한 문화도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최현 제주대학교 공과대학원장과 지속가능한 사회연구센터장, 이종필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연주 문화공간 양 큐레이터의 발제에 대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10명, 전문가 10명, 지역주민 10명의 집중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공동체와 제주’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례

들 및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고 제2세션에서는 지정토론자들을 중심으로 ‘수놓음 가치의 문화도시 발전’을 논의했으며 이어서 공무원, 학자, 예술인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문화도시 전략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정환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문화도시의 비전은 도시경제성과 통합적 도시모델이며 민주주의

와 다양성, 참여의 가치가 관철되는 문화도시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효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무처장은 “공동의 의제, 공동의 학습 구조를 설계하는 노력으로 세대 간 단절과 문화 인력의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로로 시도와 사람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27일까지 모집

제주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 복권기금, 지방비로 운영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체육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참여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 월8만원이 지원된다.

이용대상은 만5세~만18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한 부모가정, 범죄피해 가정이다. 문의 =728-3263.

고대모기자

직원모집

- 모집인원** : 정규직원 1명
- 고용형태** : 2년간의 단기고용계약으로 한다. 단, 2년간 단기 고용 계약이 문제 없이 만료된 경우, 자동적으로 정기고용계약으로 변경된다.
- 근무내용** : 영사업무 회계업무 및 관리사무업무 전반 (채용 시 상황에 따라 업무 조정 혹은 내부 이동이 있을 수 있음)
- 근무일 및 근무시간** :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로 하고, 휴일은 별도 총영사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2)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45까지로 한다. 단, 잔업 및 휴일 출근이 있을 수 있다. (3) 급여 등의 처우에 관해서는 주재주일본국총영사관 내규에 따른다.
- 응모자격**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우수한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JPT N1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컴퓨터 조작역할, 워드, 파워포인트 등에 지장이 없는 자 (5) 경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다음 사항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채용 불가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4. 징계면적 처분을 받은 자
5. 과거에 일본에서 강제퇴거처분을 받거나 입국 거부로 당한 자
- 제출서류** : (1) 이력서 (3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사진 첨부) (2) 응모이유 및 자기소개서(일부제) (3) 주민등록등본 (4)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어학 등 각종 자격증 사본 (5) 추천서(대학, 현 소속기관 또는 이전 소속 기관 등) ※ 필수 제출서류는 아님
- 채용시기** : 2월 중 예정변경 가능성 있음)
- 모집기간 및 제출처, 그 외 유의사항** : (1) 제출기간 : 2020년 1월 17일(금)까지 우편송달 필함 (단, 영문으로 지칭 접수한 경우도 동일) (2) 제출처 : 제주시 1100로 3351, 8층(새기빌딩, 제주주일본국총영사관) ※ 봉투, 갈피에 적색으로 '이력서 제출'이라 명기할 것. (3) 제출된 서류는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일괄 반환하지 않음. (4) 본건에 관한 전화문의의 시절.
- 선발방법** : 서류 심사 후, 면접 시험,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한다. ※ 서류심사 통과자에게는 1월 22일(수)까지 면접일정을 개별적으로 연락함.

제주주일본국총영사관

변호사 개업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3년 근무를 마치고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심을 잃지않고,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력 및 경력

- 광양초, 제주중, 우현고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귀포지소 공익법무관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체류 업무조만협의회 위원

변호사 현정빈 올림

• 개업일 : 2019년 12월 27일(금)

• 개업장소 : 제주시 중앙로 355, 2층

• 전 화 : ☎ 064) 803-0011

※ 개업소연은 하지 않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와 미망인 위로연 초대합니다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라는 역사의를 높이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4·3유족부녀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념식 : 2019년 12월 26일(목) 15시
장 소 : 아젠토피오레 컨벤션 2, 3층
(제주시 서광로 112), 064-743-8383

◆ 일정표 : (15:00~18:30)

- 1부 (15:00~16:00)
1. 감사패 증정: 답사
2. 기초강연 : 소설가 현기영 선생
- 2부 (16:00~18:30)
1. 4·3유족부녀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기념사, 격려사, 축사, 기념패 및 4.3 전통음식 입상차 시상, 미망인 선물 증정)
2. 미망인 위로연과 송년의 밤 (미망인 위로연 및 송년의 밤, 만찬, 경품추첨)

2019년 12월 21일
제주4·3유족부녀회장 오정희
연락처: 064-756-0500 / H·P 010-8661-5742 / 010-2598-6113

아젠토피오레 컨벤션
버스정류소: 월구마울(신제주 방면), 동산교(시청방면) 하차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